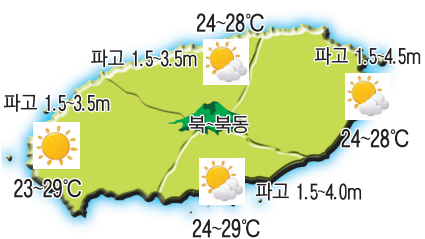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7일 월요일 음 7월 26일 (3돌)

기상정보



24~28℃
파고 1.5~3.5m
24~28℃
파고 1.5~4.5m
23~29℃
파고 1.5~4.0m
24~29℃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4℃, 낮 최고기온은 28~29℃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중산간·산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다. 당분간 강릉·풍랑·너울에 주의해야겠다.

해돋이 06:11 해질 18:52	달돋이 01:24 달질 16:24
물때 만조 07:21 20:48	간조 02:20 13:42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3/29℃

모레 맑음 23/29℃

월드뉴스

中, ‘美 갈등’ 캐나다와 8년만에 국방 대화

대만 문제 등 입장차는 여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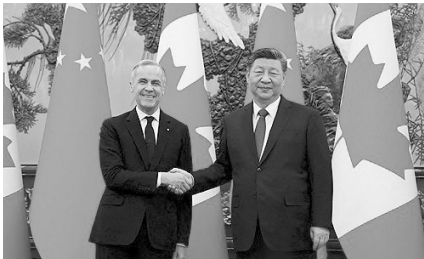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캐나다와 8년 만에 국방 당국 간 공식 대화를 재개하고 군사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는 지난 4일 캐나다에서 제5차 국방부 업무회담을 했다.

중국과 캐나다가 국방부 업무회담을 연 것은 2018년 4월 이후 8년여 만이다.

다만 중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캐나다 해군 호위함은 지난 5월 대만해협을 통과했고, 중국은 당시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중국의



중국·캐나다 정상회담. 연합뉴스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은 최근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부터 약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캐나다도 같은 규모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확산 양상을 띠고 있다.

백록담



오 은 지
편집부장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수많은 선택 앞에 선다. 어느 어린이집을 보낼지, 무엇을 배우게 할지, 어떤 학원을 다니게 할지 하나하나 저울질한다.

오롯이 내 아이에게 맞는 결정을 하고 싶으면서도, 어느 순간엔 주변의 선택에 눈길이 가기도 한다.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해도 괜찮은지 선택을 확신하기 어려운 때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김정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경쟁의 시간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의 ‘지위 경쟁, 집중 양육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논문이 소개됐다. 연구진은 자녀 교육을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지위 경쟁’이 사교육 지출을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출산을 억제한다고 분석했다. ‘지위 경쟁’이라는 말이 주는 씁쓸한 여운이 오래 맴돌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시간은 어느새 입시를 향해 흘러간다. 대학에 갔다고 끝이 아니다. 취업을 위해 학점과 자격증을 챙기고, 어학 실력을 높이고, 인턴 등 여러 경험을 더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그렇게 준비해도 사회로 향하는 문은 여전히 좁게만 느껴지고, 첫발을 내딛기까지 또 적지 않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

제철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평균 11.2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 5.7개월로 1년 전보다 1.3개월 길어졌다.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잣대가 놓인다. 입시를 향하던 시선은 더 나은 임금과 안정된 삶의 여건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형태만 바꾼 채 경쟁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지역을 떠나는 선택과 맞물리기도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내인구 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4273명이 순유출했는데 그중 20대가 2198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과 일자리 등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제주 밖으로 향하는 청

년들도 적지 않다.

지금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들은 이런 시간을 지나온 세대다. 입시와 취업의 문턱을 경험했고, 부모가 된다면 이번에는 자녀의 결에서 또 다른 경쟁의 시간을 마주할 수도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3279명이다.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0.87명으로 전년대 0.04명 상승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2015년 한 해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가 5600명이었다는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지난 10년이 남긴 변화가 무겁게 다가온다. 아이들이 자라 마주할 경쟁의 모습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열린마당

눈으로 보는 것만이 관광은 아니다



성 은 숙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관광지운영팀장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제주 전역이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공영관광지 현장에서 방문객을 직접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번 체전은, “모두를 위한 관광”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밝힌 관람객과 함께 천치연 폭포 관람로를 걸으며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분은 눈앞의 풍경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천치연의 맑은 공기와 피부에 닿는 선선한 바람,

힘찬 폭포의 물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시원해져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 천치연폭포 관람로가 안전하고 걷기 참 좋은 길이라며 잘 유지해달라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여행과 관광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감상하는 시각적 행위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관광은 바람을 느끼고, 폭포의 물소리,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만나는 경험일 수 있다.

진정한 무장애 관광은 물리적인턱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인,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자연을 느끼고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턱을 함께 낮추는 일이다.

올가을, 제주를 찾는 체전 선수단과 가족, 그리고 모든 방문객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오래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관람객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세심하게 살펴야겠다.

경험을 나누고, 성장을 잇다



양 다 인
K-water 제주지역협력본부 인턴

제주에서 취업을 준비하며 아쉬웠던 것은 공공기관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선배들에게 입사 경험을 듣거나 직접 조직에서 일해 볼 기회도 적었다.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막연했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역협력본부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하며 그 막연함이 구체화됐다. 제주지역 청년 대상 멘토링에 참여해 카페나 음식점에서 입사 1~2년 차 직원들과 마주 앉았다. NCS와 필기시험, 면접 준비에 대

해 공급했던 것을 자유롭게 묻고 생생한 경험을 들으며 나만의 취업 준비 방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

멘토링이 ‘어떻게 입사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인턴 근무는 ‘입사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규정과 법률을 검토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는 업무에 직접 참여했다. 작은 어려움도 듣는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과정을 보며 공공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했다. 조직의 전문성을 지역 현안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다.

앞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면 이번에 받은 경험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다. 먼저 걸어본 사람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막연했던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을 나누고 성장을 잇는 연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hn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감귤 신제품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농장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
에서도 씨니트 점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수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발견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